

조선시대 일상 연구의 모색*

권 내 현**

I. 일상을 보는 관점
II. 하층민의 일상에 대한 접근
III. 호적, 일기, 고문서류의 활용
IV. 마무리

국문초록

일상은 반복되는 삶이나 정태적인 물질문명이 지속되는 영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상은 개인이나 집단의 인식과 경험으로 현실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시공간이다. 이때 연구 대상으로 주목해야 하는 집단은 지배층 중심적 시각과 자료의 불균형으로 소외되었던 하층민들이다. 적응, 모방, 저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 조선시대 하층민의 생존전략은 역동적이면서도 다층적이었다. 때로는 그들의 행위 방식이 거시적 흐름을 변형시킬 수도 있었다. 호적, 일기, 고문서류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하층민의 일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관점과 초점을 이동한

* 이 연구는 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nhyun@korea.ac.kr

다면 조선시대 일상 연구는 대단히 열려 있는 영역이다. 그것은 지배층과 그들의 문헌, 구조와 제도에 집중되었던 지난 역사학에서 적어도 균형을 찾아가는 작업이다. 나아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면서도 거시적 흐름을 조망하여 정채된 조선시대 연구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

일상사, 미시사, 하층민, 호적, 일기, 고문서

I. 일상을 보는 관점

역사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사회과학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진 과거를 설명하는 학문이다. 물론 역사학자들의 분석과 설명은 당대의 현실 상황, 문제의식, 연구 방법론에 영향을 받는다. 해방 이후 한국 역사학계는 식민사학의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이라는 틀로 우리 역사를 설명하였다. 이른바 내재적 발전론이 그것이다. 내재적 발전론의 문제의식은 확대되어 통일을 지향하는 역사학이나 민중사가 주창되기도 하였다.¹⁾

20세기 말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역사학계 내부에서는 세계사의 단선적, 직선적 발전론과 이와 궤를 같이하는 한국사의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다. 탈근대 담론이나 미시사, 일상사 등 새로운 연구 경향들이 소개되었고,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도 확산하였다.²⁾ 근래에는 개별 국가나 민족을 넘어 전 지구적 층위에서 역사를 연구하는 지구사(global history), 인간 중심주의와 물질문명의 파괴적 발달로 인한 위기에서 촉발된 생태사(ecological history) 또는 환경사(environmental history)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다수의 한국사 연구자는 새로운 연구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독자적인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지도 못한 채 고식적인 연구를 반복 재생산하였다. 서구 역사학계는 정치사, 제도사 중심의 전통 역사

1) 내재적발전론을 소개한 몇몇 연구를 들면 다음과 같다. 金仁杰, 「1960, 70년대 ‘內在의 發展論’과 韓國史學」, 『김용섭교수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편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1997, 113~149쪽; 박찬승, 「한국학 연구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의 -내재적 발전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5,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73~118쪽; 김정인,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주의」, 『역사와 현실』 77, 한국역사연구회, 2010, 179~214쪽; 이영호,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연구』 152, 한국사연구회, 2011, 239~272쪽 등.

2) 조선시대 연구에서 서구중심주의와 근대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는 배향섭, 「최근 조선시대사 연구의 역사 인식과 새로운 방향 모색」, 『조선시대사학보』 105, 조선시대사학회, 2023, 7~49쪽 참고.

학에 대한 비판으로 사회사가 등장하였고, 다시 사회사에 대한 반발로 일상사, 문화사가 출현하는 등 새로운 지적 도전과 실험이 지속되었다.³⁾ 반면 한국사의 경우 전통적인 분야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연구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선시대로 한정하면 내재적 발전론과 그에 대한 비판으로 소농사회론, 유교적 근대론이 제시되었지만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생활사나 미시사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지만 하나의 연구 분야나 경향으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여전히 대다수의 연구는 소재나 사료의 확대를 통해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데 만족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새로운 실험이나 모색은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물론 사회경제사에서 사회사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향촌사회사 연구가 진전되는 가운데 지방사 혹은 지역사의 정립이 논의되었다. 또한 고문서의 지속적인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 생활사란 이름도 낯설지 않게 되었다. 더불어 호적대장의 전산화는 主戶의 직역 통계를 통해 신분 변동을 논했던 방식에서 국가의 호구 정책, 군역 운영, 가족과 친족 등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문제의식이 발전적으로 계승되거나 새로운 연구 방법이 도입되지 못한 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거나 사례 연구의 확장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기존의 자료나 분석 방식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만큼 그 자체에 의식적으로 질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 일반적인 논리나 연구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질문이야말로 정체에서 벗어나는 하나의 길이 될 것이다.

당연하게도 조선 후기를 살았던 사람들은 근대 이행을 목적으로 삶을 영위하지 않았다. 보통의 양반들은 과거 급제에 관심을 가졌고 자신의 가문이 영속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해와 기근에 수시로 노출된 보통의 하층민들은 삶의 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때로는 사회적

3) 안병직, 「한국 생활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歐美학계의 일상사 연구경향과 비교의 관점에서」, 『역사학보』 213, 역사학회, 2012, 410~411쪽.

지위도 상승하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이처럼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거나 확인된 역사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하지만 근대 이행론에 대해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익숙한 논리나 분석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익숙한 것을 더욱 익숙하도록 설명하거나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낯선 것을 낯설게 하고, 익숙한 사실들도 낯선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⁴⁾

이 글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조선 사회의 거시적 구조가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상이다. 거시적 구조가 충분히 해명되었거나 해명을 위한 시도가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익숙한 시각과 방식에서 벗어나 보자는 것이다. 일상에서 진행된 사람들의 행위 방식에 대한 분석은 당대 사회 구조의 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조와 일상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독일의 진보 역사학에서는 근대화론을 바탕으로 구조와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사에 대한 비판, 그것에 포함된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상사(Alltagsgeschichte)의 발달로 이어졌다. 일상사에서는 사회적 구조와 역사적 과정보다 ‘작은 인간들’이 이를 어떻게 경험하고 인지했는가에 주목하였다.⁵⁾ 일상사가들은 행위자 중심의 시각과 실천을 중시하여 국가 지배 역시 아래로부터 이루어지는 실천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밝혔다.⁶⁾ 그들은 나치와 일상의 파시즘, 노동사 연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독일 일상사는 주로 현대사 연구에 집중되었다.

구조사나 전체사의 성격을 가진 독일 사회사와 달리 한국에서의 사회사란 정치사, 경제사 등과 같은 하나의 분야사로 인식된다. 또한 현대사

4) 한스 메딕(알프 뢰트케 저, 나종석 외 역), 『“나룻배의 선교사들”? -사회사에 대한 도전인 인류학적 인식방법들』,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88쪽.

5) 윤용선, 「독일 일상사(日常史)의 이론적 논의」, 『외대사학』 8,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1988, 246쪽.

6) 이유재(알프 뢰트케 저, 송충기 역, 이유재 엮음), 「독일 일상사 연구와 알프 뢰트케의 삶」, 『알프 뢰트케의 일상사 연구와 ‘아집’』, 역사비평사, 2020, 11쪽.

에 집중된 독일 일상사와 달리 이 글은 조선시대의 일상에 관심을 가진다. 다만 주목할 것은 일상사의 연구 방법이다. 구조사를 비판하는 일상사에서는 구조를 인간과 분리된 것이 아닌 인간의 현실 인식과 해석, 의미 부여의 산물로 여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이를 실현하는가의 문제라고 본다.⁷⁾

이러한 문제의식은 조선시대 연구에서도 적용된다. 중세 사회의 구조나 근대 이행의 과정을 규명하려 한 연구들은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회와의 관계에 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 일상은 그러한 관계와 행위가 드러나는 영역이다. 사전적으로 일상은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로 정의되지만 일상사에서의 일상이나 일상사 그 자체는 정형화된 개념이 아니다. 일상사는 하나의 분야사라기보다는 연구 경향이나 태도에 가깝고, 일상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이론도 없다.

한국에서는 일상이나 일상사보다 생활사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다. 생활사에 관한 관심을 환기한 저작은 1996년에 나온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⁸⁾이지만 이 책은 엄밀하게 말해 생활사 연구가 아닌 역사 대중화의 결과물이다. 전문적 역사 지식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서술하려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를 생활사의 방법론으로 보는 시각도 남아 있다.

생활사의 개념과 범주를 규정해 보려 했던 우인수는 생활사를 인간의 일상적인 생활 모습과 생활양식, 그리고 그 변화상을 추구하는 역사 연구의 한 분야로 간주하였다. 이와 관련된 모든 부문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면서도 기존 연구에서 소외되었던 평범한 보통 사람, 여성, 어린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⁹⁾ 소외층에 대한 강조는 주목할 만하지만 개념과 범주가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

고문서 연구자들이 참여한 『조선시대생활사』 시리즈가 출간되면서 김

7) 안병직, 앞의 논문, 410쪽.

8)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청년사, 1996.

9) 禹仁秀,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23·24, 역사교육학회, 1999, 825쪽.

경숙은 생활사의 범주를 의식주를 포함한 일상생활, 가정생활, 친족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 관직생활, 여가생활, 신앙생활, 제도와 풍속 등으로 구분하였다. 생활사의 대상이 역시 폭넓은데, 한 사회의 체제와 운영 방식 등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보이는가를 탐구하는 학문이 생활사라고 하였다.¹⁰⁾ 그렇다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일상을 다룬 많은 부분이 생활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정연식은 이러한 광범위한 분류보다는 몇 가지 갈래로 생활사의 연구 경향을 정리하였다. 우선 가족, 친족 연구와 같이 사회사나 문화사로 분류되다가 고문서, 일기류에 나타난 개인의 생활 사례를 생생하게 다루면서 생활사로 자리 잡은 영역을 들었다. 다음으로 양반들의 일상과 같이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활동을 다룬 사회사의 영역이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의식주를 포함하여 되풀이되는 일상 또는 구조로서의 생활사를 들었다.

그는 생활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생활사를 사회사의 특정 부문 또는 사회사나 문화사에서 분화되어 새롭게 정립된 부문, 그리고 브로텔이 말한 물질문명의 장기지속 구조로서의 일상생활사로 구분하고 있다.¹¹⁾ 이러한 구분은 한국의 조선시대 연구가 독자적인 사회사적 전통과 이를 비판한 일상사적 경향이 나누어졌던 유럽의 역사 연구와 차이가 있었던 데에서 비롯되었다.

더구나 생활사 연구로 분류된 많은 논저의 저자 대다수는 자신을 생활사가로 자리매김하거나 생활사의 방법론을 따르고 있다고 명시하지 않는다. 2000년대 이후 생활을 표방한 논저는 급증하고 있지만 연구 방법론에 관한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생활사를 하나의 분야사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생활사는 아직 개념이나 방법

10) 金景淑, 「고문서를 활용한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가정 및 친족생활을 중심으로-」, 『영남학』 1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306쪽.

11) 정연식, 「한국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2009, 296~298쪽.

론이 명확하지 않은 새로운 유행이나 경향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조선시대 연구에서 일상이나 일상생활이라는 명칭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으나 이 역시 생활사와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연구자들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용어가 달리 사용될 뿐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생활사, 일상사, 일상생활사와 같은 명칭이나 그 범주가 아니라 관점, 즉 기존의 연구와 어떠한 차별성을 갖는가 하는 점이다. 사회사 소재의 단순 확장이나 의식주를 비롯한 정태적인 일상의 분석은 기존 연구의 양적 확대를 넘어서지 못한다.

새로운 관점은 사회 구조에 매몰된 인간이 아닌 행위 주체로서의 인간, 정적 영역이 아닌 인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유동적, 역동적 영역으로서의 일상을 분석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일상은 개인이나 집단의 인식과 경험이 사회 현실과 매개되는 영역이며, 문화적으로 형성된 삶의 방식과 전략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고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는 세계이다.¹²⁾ 이때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는 반드시 합리적이거나 목적 지향적인 것은 아니며 모순적이고 다층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¹³⁾ 결국 명칭보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 글에서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 일상 연구나 일상사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II. 하층민의 일상에 대한 접근

조선시대 일상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은 피지배 하층민들이다. 기존 연구의 주 대상은, 설령 그것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생활사 연구라고 하더라도 양반에게 집중되어 있다. 자료의 제약과 방법론의 부재로 하층민의 삶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불모지와도 같은 상황이다. 하나의 예를 들어 농민들이 어디에서 거주하고, 어떻게 집을 마련했는지, 그것이 일상

12)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1998, 27~28쪽.

13) 이윤택, 앞의 책, 18쪽.

을 어떻게 제약했는지에 대해 연구자들은 답을 하지 못한다.

19세기 유럽의 일부 지역 사례를 보면 집과 토지를 가지지 못한 농민은 농가 주인에게 이를 임대하는 대신 소작료를 내고 나아가 무제한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농가 소유자라도 아들 단독상속의 관행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된 그의 자녀는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소작농의 자녀는 다시 소작농이 되거나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작농들은 대개 거대한 사회 경제 구조 속에 휩쓸려 가는 이름 없는 집단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가족이나 친족 관계의 강화, 상호부조 때로는 이민을 통해 능동적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려고 하였다.¹⁴⁾

이 사례는 조선시대 연구자들에게 많은 질문거리를 제공한다. 조선의 소작농에 관한 연구는 토지 임대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그들의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또 다른 기본 요소인 주거 공간에는 관심이 없다. 소작농의 대다수는 허름한 초가라고 하더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었던가? 그렇다면 그들 삶의 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실상은 모호하다. 더구나 여러 명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부모의 집을 상속받는다면 나머지는 이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인가?

한편으로 토지는 물론 집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농가 주인에게 수시로 노동력을 제공해야 했던 소작농의 처지는 신분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노비와 같은 종속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런데 집과 토지를 소유했거나 주인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조선의 외거노비는 이들보다 더 자유로웠다. 일부 연구자들이 조선을 노예제사회로 보는 관점은 노비들의 종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취사선택하여 일반화한 논리라는 혐의가 짙다.

이처럼 단순한 사실로부터 다음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하층민의 삶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물론 연구자들의 관심도 적었다는 점이

14) 위르겐 슐름봄 (백승중·장현숙 공편역), 『행동하는 존재, 소작농들의 삶의 전략 -소작농민들의 삶을 새롭게 읽어내는 미시사 연구』, 『미시사의 즐거움』, 돌베개, 2003, 131~133쪽.

다. 당연히 자료의 문제가 크겠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 구조에 대한 해명에 치중하거나 그러한 논리의 수용에 머물러 하층민의 일상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의 농민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에 종속된 수동적인 존재로, 노비는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신분 해방 과정을 추적하기 위한 수단이거나 역사 발전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존재로 간주, 묘사되었다. 이때 삶의 조건을 바꾸어 나가는 개인의 능동성은 가려지고 하층민들은 평균화한 집단으로 처리되었다.

반면에 양반들의 일상에 대한 접근은 상대적으로 용이해졌다. 기존의 관찬 문서나 문집 외에도 일기나 고문서 자료들이 계속해서 수집, 정리되고 있기 때문이다.¹⁵⁾ 이를 통해 양반들의 지방 지배와 권력관계에 집중되었던 기존의 사회사 연구로부터 그들의 사적 영역에 대한 분석으로 소재가 확장되었다. 그 과정에서 전경목의 우반동 연구처럼 군현 단위보다 축소된 공간에서 특정 양반 가문의 삶이 구체적으로 분석된 저술이 나오기도 하였다.¹⁶⁾ 다행히도 근래에는 일기나 고문서에 기록된 하층민, 특히 노비들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조선시대 연구의 중심 대상이었던 양반이 아닌 하층민을 거대한 구조나 평균화한 집단 속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의 일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고민이 필요한 것인가?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미시사적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 미시사는 인간 개개인의 모습이 사라지는 거대 역사보다 경계 지워진 지역 내에서 어떤 위기나 사건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전략이나 가치관을 면밀하게 탐색하는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 리얼리티의 복잡 미묘한 관계망을 이해하려고 하였다.¹⁷⁾

15) 조선시대 일기에 대한 최근의 연구사 정리로는 이정철, 「조선시대 일기자료 특성들에 대한 재검토」, 『영남학』 72,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0, 37~67쪽; 김정운, 「조선시대의 일기자료와 연구동향」 『영남학』 72,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0, 7~36쪽을 참고할 수 있다.

16)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문예연구사, 2001.

경계 지워진 지역 연구의 좋은 예로 엠마누엘 르루아 라뒤리(Emmanuel Le Roy Ladurie)의 『몽타이유』를 들 수 있다.¹⁸⁾ 중세 남프랑스 몽타이유 마을의 농민 문화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이 저술의 탄생은 역사가의 노력만큼 자료에 힘입은 바 크다. 기독교의 이단인 카타르파를 척결하기 위해 주교가 마을 사람들에게 캐물었던 온갖 내용이 문서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미시적 접근은 인간들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작은 영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물론 이때에도 중요한 점은 단지 작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안에서 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존하는 조선시대 자료 가운데에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이처럼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없다. 따라서 마을이라는 경계 내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행위를 분석하기 어렵다면 공간 범위를 면리나 군현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시간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상의 대상은 제한된 시간 범위에서 포착된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일 수도 있지만 백 년, 이백 년이 넘는 장기적 관계나 변화일 수도 있다. 특정한 농민이나 노비 가계가 세대를 이어가며 생존을 위해 혹은 사회적 성장을 위해 벌였던 행위, 관계 역시 일상 연구의 대상인 것이다.

다음으로 사람들의 전략이나 가치관, 관계를 면밀하게 탐색하는 접근법은 일상을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시각과 연결된다. 미시사가 조반니 레비(Giovanni Levi)의 주장처럼 인간의 다양한 생존 전략은 거시적 흐름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조건 지우고 수

17) 광차섭, 「미시사란 무엇인가」, 『다시,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17, 17쪽.

18) 엠마누엘 르루아 라뒤리 저, 유희수 역, 『몽타이유—중세말 남프랑스 어느 마을 사람들의 삶』, 도서출판 길, 2006.

19) 근래 서구 미시사의 영역은 계속 확대되어 지구적인 것과 미시적인 것을 결합한 지구적 미시사(global microhistory), 지방적인 것과 지방적인 것의 관계를 탐구하는 트랜스로컬 미시사(translocal microhistory)로 발전하고 있다.(장문석, 「이탈리아 미시사에서 지구적 미시사로 : 미시사의 전통과 변형」, 『동아문화』 60,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023, 210쪽) 미시적 분석의 공간은 내용과 대상에 따라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하게 하는 계기를 만든다. 거시사에서는 미리 정해진 모형이나 논리 속에서 이러한 역동성이 무시된 결과만을 보여주기 쉽다.²⁰⁾

일례로 조선시대 신분 변동론의 관점에서 하층민의 幼學 직역 획득을 양반으로의 신분 상승으로 이해했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논리는 신분제 해체와 근대 이행이라는 모형을 통해 당대 역사상을 재단한 것이다. 하층민의 유학화는 국가의 호구 정책과 지방 관청의 부세 운영이라는 외부 조건에 대한 민들의 대응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들의 목표는 일단 군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개인 차원에서, 때로는 부계 혈연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여기에 뛰어들었다.

호적 자료를 통해 구성된 통계 수치는 이 과정이 일직선이며 한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이도록 한다. 하지만 19세기에도 유학 직역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이 존재했다. 유학이 된 경우에도 어떤 평민은 자신 당대에 성취했고, 노비에서 해방된 어떤 평민은 수 세대가 지난 뒤에야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다. 유학이 되었다가 業儒와 같은 중간층 직역으로 밀려난 이들도 많았다. 향리의 다수는 유학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들의 삶은 양반의 증가라는 명제처럼 단순하지 않았던 것이다.²¹⁾

신분제나 부세 운영과 연관된 유학 직역 획득에서 보이는 민들의 대응 양상이나 그 결과는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역사는 신분 상승을 위해 매진하다 부세 침탈로 고통받고 결국 봉기를 일으키는 존재로 하층민을 평균화한다. 이들은 다시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든 근대 민족운동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로 묘사된다. 이러한 거시적 관점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인간 행위의 개별성이나 다양성, 중층성으로 관심을 확장하자는 것이다.

노비에 대해서도 신분제적 억압이나 그 해방 과정에 관해서는 많은

20) 조반니 레비, (위르겐 슬룸봄 편, 백승중 외 역) 『근대 국가의 기원과 미시사적 관점, 『미시사와 거시사』, 궁리, 2001, 87~89쪽.

21) 한 노비 가계의 장기간 신분 상승 과정을 다룬 연구로는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어느 노비 가계 2백 년의 기록』, 역사비평사, 2014 참고.

연구가 이루어졌다. 19세기 노비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방향을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비들의 현실 대응은 매끄럽게 한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일기를 보면 많은 노비는 도망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일부는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왔다. 도망의 동기는 자기 잘못에서 비롯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수도, 생계유지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수도 있었다. 외거노비의 경우 身貢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와 도망 사이의 경계도 모호했다.²²⁾

도망 노비는 18세기 호적에서 급증하지만 이들 모두가 신분 상승을 이룬 것은 아니었다. 일부는 도시나 광산, 섬으로 흘러 들어갔고, 어떤 이들은 좀 더 부유하거나 세력 있는 주인을 찾아 정착하기도 하였다. 신분 변동과 같은 익숙한 주제에서도 노비들의 행위 방식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세부적이고 미세한 일상의 행위는 훨씬 복잡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외부의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일상의 조건을 바꾸려는 하층민들의 노력은 단순화하면 적응, 모방, 저항 등의 태도를 보였다. 경작 토지를 확대하지 못했던 다수의 농민은 점차 집약 농법이나 여러 작물을 소량 생산하는 방식으로 현실에 적응하였다.²³⁾ 도망가지 않은 노비들은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점차 雇農으로 변신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한편으로 호적을 보면 한 마을에 수많은 이들이 사라지고 또 새롭게 들어왔다. 19세기 들어 하층민 동성촌락으로 변신한 곳이 있는가 하면 촌락 구성원들이 크게 바뀐 곳도 있었다. 기존의 호적 연구는 이런 역동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하층민들이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인 주요한 행동 방식은 상층 양반 문화의 모방이었다. 집단적 유학화에 성공한 하층민 부계 친족

22) 정진영, 「18세기 일기자료를 통해본 사노비의 존재형태 -百弗庵 崔興遠의 《曆中日記》(1735~1786)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3, 한국고문서학회, 2018, 106쪽.

23) 김건태, 「19세기 집약적 농법의 확산과 작물의 다각화 -경상도 예천 맞질 박씨가 가작 사례」, 『역사비평』 101, 역사문제연구소, 2012, 280~312쪽.

구성원들은 제례와 입양을 수용하고 나아가 동성촌락을 형성하였다.²⁴⁾ 이를 성리학 이념의 하향 이동과 하층민의 수용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성리학 이념의 단순 확산만이 아닌 하층민들의 적극적인 모방 행위의 결과이기도 했다. 하층민들도 가족의 지속적인 재생산을 물질적 차원을 넘어 상징적 차원에서 고민하였고 부계 친족 구성원의 집거가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율적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노비의 후손 일부도 신분 해방 뒤에는 이런 삶의 방식을 수용하였다.

하층민의 저항 양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19세기 농민항쟁 이전의 도적 집단, 유망이나 범죄 행위, 합법적 청원과 같은 전통적인 연구 외에도 일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주, 양반과의 갈등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들도 확인되었다. 노비의 경우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자산을 지키려고 애쓰는 행위나 옛 주인 집안을 상대로 재산 소유권 소송을 벌이는 행위까지 검토되었다.²⁵⁾ 집단적 농민항쟁과는 다른 일상에서의 저항 양상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적응, 모방, 저항으로 단순화하였지만 하층민의 일상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들은 새롭게 창안될 필요가 있다. 알프 뢰트케(Alf Lüdtke)는 노동자들의 일상을 연구하면서 다층적이고 직접적이며 매개 불가능한 개별 행위자의 실천으로 정의되는 ‘아집(eigensinn)’이란 개념을 적극 활용하였다. 노동자들이 권력과 지배에 직접적으로 부딪히며 살아남기 위해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서 뺨질거림, 애매한 행동, 두루뭉술 넘어가는 행위, 명확한 입장이 없는 행동을 관찰하며 이 개념을 사용하였다. 생존을 위한 일상에서 노동자들의 행위는 합리적, 논리적, 목적 지향적이라기보다는 모순적이고 다층적인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²⁶⁾

24) 권내현, 「조선 후기 신분 변동론 그 이후」, 『조선시대사학보』 105, 조선시대사학회, 2023, 187~188쪽.

25) 김경숙, 「決訟立案과 소송 현장, 그리고 노비의 삶」, 『한국문화』 8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309~334쪽.

26) 이유재, 앞의 책, 17~18쪽.

한국사의 경우 식민지시대 재판 기록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저항 양상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불온’이라는 개념이 있다.²⁷⁾ 불온은 식민지 지배 당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지만 이러한 지배 도구가 당대 사회를 감염시키면서 나타난 인간들의 다면적인 행위 방식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었다. 새로운 개념의 적용은 조선시대 일상의 분석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계급투쟁이나 신분 상승과 같은 합목적적이거나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농민, 노비들의 의식, 태도, 가치관의 실천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여기에 걸맞을 것이다.

이때 미시적 접근은 단지 작거나 사소한 것의 역사, 특별하고 흥미로운 사례를 드러내는 역사의 소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시사는 일상사와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역사학의 한 갈래로 출발하였다. 미시적 접근은 하층민의 삶을 더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거시적인 역사와의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조선시대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상이나 미시적 연구의 축적은 결과적으로 거시적 사회 현상을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일상 연구는 흥미로운 에피소드의 소개와는 거리가 있다.

물론 미시사에서는 이야기로서의 역사가 선호되기도 하지만 이때 이야기는 일반화와 계량적 형식화를 넘어서기 위한 도구이다. 역사가는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자신의 관점으로 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도 하고, 이례적이거나 무의미해 보이는 사실에서도 사회적 맥락을 발견하기도 한다.²⁸⁾ 내털리 제이먼 데이비스(Natalie Zemon Davis)의 유명한 저작 『마르탱 게르의 귀향』은 저자의 창안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역사소설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미시사가 카를로 진즈부르크(Carlo Ginzburg)는 이 작품을 진실과 창안의 대립이 아닌 실재와 가능성의 통합으로 이해한다.²⁹⁾ 이례적 사건에서 보이는 사실의 공백을 이

27) 정병욱, 『식민지 불온열전』, 역사비평사, 2013.

28) 조반니 레비, 「미시사에 대하여」, 광차섭, 앞의 책, 78~79쪽.

29) 카를로 진즈부르크, 「증거와 가능성 -내털리 제이먼 데이비스 작 <<마르탱 게르의 귀향>>에 부쳐」, 광차섭, 앞의 책, 344쪽.

이야기체 서술을 통해 가능성에 대한 탐색과 해석으로 매워 나갔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연구에서 이야기체 서술을 도입한 것은 역사학계보다는 한문학계였다. 조선시대 사회상을 대중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하는 데 공헌한 이들 가운데에는 한문학자들이 많다.³⁰⁾ 다만 이들은 물론이고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체 저술도 일상사나 미시사의 관점이 적극적으로 차용된 것은 아니었다. 프랑스에서 마르탱 게르 사건이 일어난 16세기 조선에서 벌어진 유사한 사건을 다룬 두 권의 저술을 비교해 보자.

대구의 한 양반가에서 유유란 인물이 가출하고 가짜가 나타났을 때 유유의 부인 백씨와 시동생 유연을 중심으로 전개된 가족 갈등은 당대 사회에 충격을 준 이례적 사건이었다. 권내현은 다양한 자료를 동원해 상속 관행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족, 친족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³¹⁾ 동시에 유럽과 조선의 상속 제도를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비교 설명하였다. 반면 한문학자 강명관은 상속 문제보다 유유의 성적 불능과 백씨 부인의 욕망을 중심으로 사건을 풀어나갔다. 그는 사건의 주범을 파헤치며 도덕적으로 ‘매끈한’ 조선 사회라는 통념에 도전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³²⁾

두 편의 글은 자료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권내현은 당대의 제도와 관행이라는 안정적인 통로에 기대었고, 강명관은 해석의 오류라는 위험을 안고 가능성의 영역에 더 과감하게 도전했다.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다룰 때 실재와 가능성 사이에서 역사가는 딜레마에 빠지기 마련이다. 만일 위 사건을 서술할 때 자료가 비교적 많은 양반가의 인물들이 아닌 가짜 유유와 같은 하층민을 전면에 내세운다면 딜레마는 더 커지게 된다. 하층민의 역사를 존재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면 평면적인 설명에 그칠 것이고, 충분한

30) 백승중, 「한문학과 미시사의 풍요로운 만남」, 『동양한문학연구』 24, 동양한문학회, 2007, 7~9쪽.

31) 권내현, 『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 너머북스, 2021.

32) 강명관,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전략』, 푸른역사, 2021.

근거 없이 가능성에만 몰두한다면 창작으로 끝날 것이다.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자료 활용의 확장이다.

Ⅲ. 호적, 일기, 고문서류의 활용

조선시대 일상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문헌 자료로는 호적대장, 일기, 고문서류 등이 있다. 호적은 국역이나 신분 문제 외에도 역사인구학에서 주로 다루었던 가족, 친족 연구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 개인에 대한 단순 정보가 나열되어 있지만 수많은 하층민의 존재를 호적처럼 광범위하게 기록한 자료도 없다. 호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나 분석 방법에 따라서는 하층민의 행위나 욕망을 읽어낼 수 있다.

호적은 결혼으로 연결된 복잡한 관계망의 재구성에 도움을 주며 후손의 추적을 통한 장기적 일상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하층민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모방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노비들은 평민으로 성장하면 성과 본관을 갖추었고, 고유어로 만들어진 이름을 한자식으로 바꾸었다. 노비로서의 흔적을 버리고 다른 평민들과의 동질성을 추구하는 행위였다.

여기에서 고유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노비의 이름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해 볼 수 있다. 노비의 이름 중에는 그들의 외모나 성격에서 따온 것이 있는가 하면 개조지(介助之), 개부리(介不里), 소부리(牛不里)처럼 동물의 성기나 육설로 여겨지는 것들도 있다.³³⁾ 후자의 이름에 관한 손쉬운 해석은 노비를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적 억압 구조, 그로 인한 노비들의 자기 주체성 결여와 현실에 대한 수동적 수용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 해석을 의심하고 또 다른 가능성을 탐색한다면 새로운 실마리 찾기가 시작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료가 풍부한 지배

33) 車載銀, 「대구부 동상면 호적의 고유어계 노비명에 관한 계량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389쪽.

층과는 달리 하층민의 일상은 추론을 통한 분석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노비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자식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장수하거나 후손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다고 볼 수는 없는가? 그런 추론이 가능하면 어떤 천한 이름은 건강과 장수를 바라는 부모의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호적은 이에 대한 어떠한 정답도 제공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연구된 내용도 없다. 그렇다면 이름에 대한 당대인들의 관념이나 욕망을 읽을 수 있는 다른 자료나 민속학적 흔적으로까지 추론을 확대해야 한다. 하층민 연구를 알려진 문헌 자료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비의 이름은 사소하거나 단지 흥미를 자극하는 소재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이름을 들어 노비를 인간적 본성과 공감마저 거세된 완전한 종속적 존재로 일반화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일상 연구는 이러한 일반화를 거부하고 부정적 이름에 담긴 노비들의 심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적하도록 권유한다.

하층민들의 행위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된 자료로는 일기가 있다. 기록자인 양반의 관점으로 묘사한 것이지만 주변 농민이나 소유 노비의 행동이나 태도, 성격 등을 언급한 일기들이 존재한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16세기 이문건의 『默齋日記』였다. 일상의 사소한 영역까지 세세하게 기록한 이문건의 글쓰기 방식에 따라 『목재일기』에는 그가 소유한 노비들의 생활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³⁴⁾ 이외에도 17세기 『丙子日記』, 18세기 『曆中日記』, 19세기 『庚戌日記』 등 여러 종류의 일기들이 노비 연구에 이용되었다.³⁵⁾

양반들의 사생활을 기록한 일기에는 자료의 성격상 소유 노비의 행위

34) 『목재일기』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노비들의 삶에 집중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논문으로 李蕙汀, 「16세기奴婢의 삶과 의식세계 -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를 들 수 있다.

35) 김현숙, 「19세기 중반 양반가 일기에 나타난 노비와 노비노동 -호서지역 김호근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7, 조선시대사학회, 2013, 429~464쪽; 조혁연,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전기의 私奴婢」, 『중원문화연구』 21, 중원문화연구소, 2013, 151~178쪽; 정진영, 앞의 논문 등.

에 대한 관찰이 많으므로 평민보다는 노비의 일상을 연구하기에 적합하다. 근래까지 노비 연구는 조선의 신분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존재 양상을 분석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일기는 생존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비들의 적극적인 삶의 전략과 대응을 보여준다. 노비들은 주인의 눈을 피하거나 속이며, 때로는 체벌을 감수하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였다. 주인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도망하는 일도 잦았다. 도망하지는 않더라도 마치 노동자들의 ‘아집’처럼 노비들은 일상에서 주인의 명령에 완고한 태도를 보이거나 거짓말로 동료들을 감싸고, 다른 노비와 몰래 주인을 욕하며 희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주의 폭력, 女婢를 상대로 한 희롱이나 간통이 엄연하게 존재했지만 노비들의 행위는 억압과 종속의 관점으로만 노비제를 바라볼 수 없게 한다. 어쩌면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 이상으로 노비들의 일상적 저항이 노비제의 존속을 어렵게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양반에 의해 ‘忠奴’나 ‘烈女’로 불린 소수의 노비도 존재했으나 이들의 행위 동인을 지배 문화의 전파나 그에 대한 순응으로 볼 것인지는 또 다른 분석이 있어야 한다. 아마도 노비에게 붙여진 이러한 명칭은 양반들의 기대와 희망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하층민의 삶에 대한 분석에서는 자료와 역사적 진실이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자료가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숨기고 있는 사실들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³⁶⁾

양반들의 삶에도 무속이나 민간신앙이 침투해 있었지만 하층민의 일상을 이와 분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성리학적 이념에 완전하게 동화되지 않았으며 정감록과 같은 저항 사상을 충실하게 따른 것도 아니었다. 잦은 출산과 높은 유아 사망률,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질병, 풍족하지 않은 살림의 고통 속에서 민간신앙에 대한 의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하층민들은 지배층이 생산, 제공했던 문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들의 방식대로 지배층과 지배 문화를

36) 金基鳳, 「微視史-하나의 ‘포스트 모던적’ 역사서술?」, 『역사교육』 61, 역사교육연구회, 1997, 127쪽.

인식하고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배 문화와 피지배 문화는 상호 교차하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인식이나 문화는 대부분 지배층에 의한 부분적이고 왜곡된 기록을 통해 알려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례적이거나 한정된 사례의 기록이라고 하더라도 ‘잠재된 가능성’³⁷⁾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구전, 민담이나 민속자료이다.³⁸⁾ 일상 연구에서 역사민속학적 관점의 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다.³⁹⁾ 다만 문헌 자료의 재해석과 문헌 이외 자료로의 시야 확장이라는 오래된 구호를 실제 연구에서 잘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개별 하층민의 능동적인 행위의 분석이나 때로는 이야기체 서술도 가능하게 하는 자료로는 고문서류가 있다. 고문서는 계속해서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일상 연구와의 접목이 지속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축적된 상속의 경우 자료의 특성과 연구의 한계로 인해 분석 대상인 노비는 대체로 통계 숫자에 묻힌 존재였을 뿐이었다. 그들의 운명은 소유주의 처분에 전적으로 종속된 것으로만 보인다.

하지만 하층민이 상속의 주체인 소수의 문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1540년 사노 복만은 꽤 많은 재산을 두 명의 딸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고, 남의 집 비를 부인으로 삼아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재산 일부를 記上하였다.⁴⁰⁾ 노비가 기와집 두 채를 비롯하여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재산 소유 그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타인의 소유물이었던 노비가 자기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주노 관계에서 일상적인 긴장이 형성될 수 있었다. 노비는 자기

37) 카를로 진즈부르크 저, 김정하·유제분 역, 『치즈와 구더기 -16세기 한 방앗간 주인의 우주관-』, 문학과지성사, 2001, 43쪽.

38) 로버트 단턴(Robert Darnton)은 『고양이 대학살』에서 보여주었듯이 민담, 미신, 속담 등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구현하였다.

39) 이혜준, 「생활사 연구의 역사민속학적 모색」, 『역사민속학』 13,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31~48쪽.

4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私奴卜萬分給文記」, 『고문서집성 41 -안동 주촌 진성이씨편(I)-』, 1999.

재산을 지키고 늘려가기 위해 노력했고, 일부 주인은 주노 관계를 악용해 노비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보인 노비의 대응은 매우 전략적이었다.

하나의 고문서가 보여주는 사실은 제한적이지만 다양한 상상과 추론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 노비는 물론이고 일반 평민들의 상속 문서는 양반들의 상속 관행과 유사한 측면을 드러낸다.⁴¹⁾ 하층민들이 양반들의 균분 상속과 적장자 우대 상속의 관행을 따랐다면 그것은 상층 문화의 일방적 수용인가? 아니면 상하층 사이에 공통으로 흐르는 의식이나 심성이 존재했던 것인가? 역사학자들은 양반들의 행위를 성리학 이념으로 재단하기 쉽지만 그것은 다양한 생존전략의 과정이나 결과물이었다. 하층민들에게서 보이는 양반 문화 역시 그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다. 상하층 문화 사이의 접점을 찾아 나간다면 상층 양반 문화에 대한 재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상속 문서는 많은 추론을 해야 하지만 所志, 上言, 決訟立案 등의 소송 문서는 하층민들의 능동적인 전략 행위를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결송입안은 소송의 시작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과 증거물을 구체적으로 수록하였다. 사회적, 신분적으로 억압받던 여성이나 하층민들도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었으므로 그들은 소송 과정에서 법과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위기를 모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하였다. 노비들은 주인에게 자기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온갖 공리를 했다.⁴²⁾

이러한 움직임은 억압과 저항이라는 단순 구도의 이면에서 파생했던 긴장과 갈등에 대한 하층민의 생생한 대응을 포착하게 한다. 현재 수집된 결송입안의 다수는 원고와 피고의 신분을 막론하고 토지와 노비 등

41) 평민들의 상속에 대해서는 문숙자, 「16-17세기 常民層의 재산 소유와 상속 사례 -상민 賣主, 財主의 賣買文記와 分財記로부터-」,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29~50쪽 참고.

42) 李在洙, 「16-17세기 奴婢의 田畓 所有와 賣買 實態」, 『조선사연구』 9, 조선사연구회, 2000, 135~186쪽; 김경숙, 「소송을 통해 본 조선후기 노비의 記上抵抗 -1718년 求禮縣 決訟立案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36, 호남사학회, 2009, 73~105쪽.

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다루고 있다. 이 문제는 개인 간의 갈등 양상을 넘어 더 거시적인 사회 현상에 대한 전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조선은 봉건제 사회와 달리 한 지역의 토지 소유권이 수많은 개인에게 분산되어 있었다. 양반에게는 세습되는 영지가 없었고, 노비들도 소유의 주체가 되었다. 여기에다 살아 움직이는 인간에 대한 소유를 규정한 노비제가 결합되어 있었다.

이때 발생한 분쟁은 결국 지방관을 포함한 국가 권력에 의해 해결되었다. 소유권의 문제 외에도 다양한 갈등들이 소송으로 이어졌다. 중앙 집권제 사회, 특히 지방 행정까지 중앙에서 파견된 관료에 의해 장악되었던 조선 사회에서는 강한 결속을 가진 공동체나 그러한 조직이 발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기대나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에서 하층민의 갈등 해결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나 지역 공동체의 규정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문서는 일상 연구를 위한 좋은 자료임이 틀림없다. 다만 사회적인 맥락과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 분석은 현상 설명이나 사례 연구의 반복으로 그칠 위험이 있다. 고문서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일상 연구와 접목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호적이나 일기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고문서의 분석에서도 파생되는 다양한 자료를 같이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배층의 문헌 자료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개인이나 집단이 외부의 조건이나 압력에 맞서 당대의 현실을 재구성하려는 다양한 시도는 역사가의 자료 활용에 따라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IV. 마무리

이 글은 조선시대 연구에서 생활사나 일상사, 미시사가 반드시 하나의 분야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방법론에 따라 생산된 뛰어난 연구들이 축적되면 특정 분야는 자연스럽게 독

립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다. 생활이나 일상을 표방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관점과 방법이다. 일상은 반복되는 삶이나 정태적인 물질문명이 지속되는 영역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상은 개인이나 집단의 인식과 경험에 의해 현실이 역동적으로 재구성되는 공간이다.

연구 대상으로 주목해야 하는 집단은 지배층 중심적 시각과 자료의 불균형으로 소외되었던 하층민들이다. 그들은 대개 단선적 역사발전론이나 거시 구조에 묻혀 평균화한 존재나 통계 숫자로 처리되었다. 하지만 적응, 모방, 저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하층민의 생존전략은 역동적이면서 다층적이었다. 때로는 그들의 행위 방식이 거시적 흐름을 변형시킬 수도 있었다. 익숙한 문제의식과 고식적 자료 활용에서 벗어난다면 살아 움직이는 일상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일상 연구가 조선시대사 혹은 한국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아직 장담할 수는 없다. 역사는 일직선으로 발전하지 않았지만 향후 지속적인 발전과 진보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근대의 부정적 측면이나 현재 인류 문명의 위기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지만 조선시대사 역시 근대를 향한 진보의 과정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 그렇다고 조선이 장기 정체된 정적인 사회이거나 변화의 의지가 거세된 무기력한 사회도 아니었다.

근대와 같이 전제된 가설의 입증에서 벗어나면 한 사회의 다양한 면모들이 드러난다. 거시 구조가 배제된 다양성의 파악은 역사 연구의 본질이 아니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의 진보나 위기 혹은 사회 구조는 인간의 인식, 경험, 실천의 결과물이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는 미시적이라도 사회 현상이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일상 연구는 결국 관점과 초점을 이동해 당대 사회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 연구는 대단히 열려 있는 영역이다. 그것은 지배층과 그들의 문헌, 구조와 제도에 집중되었던 지난 역사학에서 적어도 균형을 찾아가는 작업이다. 나아가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적 관계에 집중하면서도 거시적 흐름을 조망하여 정체된 연구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역사학이라기보다

는 관심에서 소외되었던 부분을 연구자의 시야로 정당하게 끌어들이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 이 논문은 2024년 05월 2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05월 27일부터 0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0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 권내현, 「조선 후기 신분 변동론 그 이후」, 『조선시대사학보』 105, 조선시대사학회, 2023, 187~188쪽.
- 김건태, 「19세기 집약적 농법의 확산과 작물의 다각화 -경상도 예천 맛질 박씨가 가작 사례」, 『역사비평』 101, 역사문제연구소, 2012, 280~312쪽.
- 金景淑, 「고문서를 활용한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가정 및 친족생활을 중심으로-」, 『영남학』 10,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06, 306쪽.
- 김경숙, 「소송을 통해 본 조선후기 노비의 記上抵抗 -1718년 求禮縣 決訟立案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 36, 호남사학회, 2009, 73~105쪽.
- 김경숙, 「決訟立案과 소송 현장, 그리고 노비의 삶」, 『한국문화』 83,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309~334쪽.
- 金基鳳, 「微視史-하나의 ‘포스트 모던적’ 역사서술?」, 『역사교육』 61, 역사교육연구회, 1997, 127쪽.
- 金仁杰, 「1960,70년대 ‘內在的 發展論’과 韓國史學」, 『김용섭교수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간행위원회편 한국사 인식과 역사이론』, 지식산업사, 1997, 113~149쪽.
- 김정은, 「조선시대의 일기자료와 연구동향」 『영남학』 72,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0, 7~36쪽.
- 김정인,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주의」, 『역사와 현실』 77, 한국역사연구회, 2010, 179~214쪽.
- 김현숙, 「19세기 중반 양반가 일기에 나타난 노비와 노비노동 -호서지역 김호근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7, 조선시대사학회, 2013, 429~464쪽.
- 문숙자, 「16-17세기 常民層의 재산 소유와 상속 사례 -상민 賣主, 財主의 賣買文記와 分財記로부터-」,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29~50쪽.
- 박찬승, 「한국학 연구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의 -내재적 발전론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5,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7, 73~118쪽.
- 배항섭, 「최근 조선시대사 연구의 역사 인식과 새로운 방향 모색」, 『조선시대사학

- 보』 105, 조선시대사학회, 2023, 7~49쪽.
- 백승중, 「한문학과 미시사의 풍요로운 만남」, 『동양한문학연구』 24, 동양한문학회, 2007, 7~9쪽.
- 안병직, 「한국 생활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歐美학계의 일상사 연구경향과 비교의 관점에서」, 『역사학보』 213, 역사학회, 2012, 410~411쪽.
- 禹仁秀,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역사교육논집』 23·24, 역사교육학회, 1999, 825쪽.
- 윤용선, 「독일 일상사(日常史)의 이론적 논의」, 『외대사학』 8,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1988, 246쪽.
- 이영호,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연구』 152, 한국사연구회, 2011, 239~272쪽.
- 李在洙, 「16·17세기奴婢의 田畠 所有와 賣買 實態」, 『조선사연구』 9, 조선사연구회, 2000, 135~186쪽.
- 이정철, 「조선시대 일기자료 특성들에 대한 재검토」, 『영남학』 72,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2020, 37~67쪽.
- 이해준, 「생활사 연구의 역사민속학적 모색」, 『역사민속학』 13, 한국역사민속학회, 2001, 31~48쪽.
- 李蕙汀, 「16세기奴婢의 삶과 의식세계 - 『默齋日記』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장문석, 「이탈리아 미시사에서 지구적 미시사로 : 미시사의 전통과 변형」, 『동아문화』 60,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023, 210쪽.
- 정연식, 「한국 생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조선시대 생활사 연구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72, 한국역사연구회, 2009, 296~298쪽.
- 정진영, 「18세기 일기자료를 통해본 사노비의 존재형태 -百弗庵 崔興遠의 《曆中日記》(1735~1786)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3, 한국고문서학회, 2018, 106쪽.
- 조혁연, 「『병자일기』에 나타난 17세기 전기의 私奴婢」, 『중원문화연구』 21, 중원문화연구소, 2013, 151~178쪽.
- 車載銀, 「대구부 동상면 호적의 고유어계 노비명에 관한 계량적 고찰」, 『대동문화연구』 66,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9, 389쪽.
- 강명관, 『가짜 남편 만들기, 1564년 백씨 부인의 생존전략』, 푸른역사, 2021.

- 곽차섭, 『다시,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17.
- 권내현, 『노비에서 양반으로, 그 머나먼 여정 -어느 노비 가게 2백 년의 기록』, 역사비평사, 2014.
- 권내현, 『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속』, 너머북스, 2021.
- 백승중·장현숙 공편역, 『미시사의 즐거움』, 돌베개, 2003.
- 안병직 외,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신문사, 1998.
- 알프 뢰트케 저, 나종석 외 역,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 알프 뢰트케 저, 송충기 역, 이유재 엮음, 『알프 뢰트케의 일상사 연구와 ‘아집’』, 역사비평사, 2020.
- 엠마뉘엘 르루아 라뒤리 저, 유희수 역, 『몽타이유 -중세말 남프랑스 어느 마을 사람들의 삶』, 도서출판 길, 2006.
- 위르겐 슐룸뎀 편, 백승중 외 역, 『미시사와 거시사』, 궁리, 2001.
- 전경목, 『고문서를 통해 본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문예연구사, 2001.
- 정병욱, 『식민지 불온열전』, 역사비평사, 2013.
- 카를로 진즈부르그 저, 김정하·유제분 역, 『치즈와 구더기 -16세기 한 방앗간 주인
의 우주관-』, 문학과지성사, 2001.
-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청년사, 1996.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41 -안동 주촌 진성씨씨편(I)-』, 1999.

Abstract

The search for the study of everyday life in the Joseon Dynasty

Kwon, Nae-hyun

Everyday life does not only refer to the repetition of life or the static realm of material civilization. It is a time and space where reality is dynamically reconstructed by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individuals and groups. The groups to be studied are the underclasses who have been marginalized by the imbalance of dominant perspectives and data. The survival strategies of the lower classes in the Joseon Dynasty, which can be categorized as adaptation, imitation, and resistance, were dynamic and multi-layered, and sometimes their behaviour could alter the macro-level trends. Family registers, diaries, and historical manuscripts are a good, albeit fragmentary, source for reconstructing the daily lives of the lower classes. If we shift our perspective and focus, the study of everyday life in the Joseon Dynasty is a very open field. It is at least a counterbalance to past historiography, which has concentrated on the ruling class and their literature, structures and institutions. Furthermore, by focusing on everyday human behaviour and social relations, while also looking at macro-level trends, we can revitalize the stagnant study of the Joseon Dynasty.

keywords :

history of everyday life, microhistory, lower class people, family register, diary, historical manuscripts